



[뉴스] 국가기록원 이태원 참사 '사고'로 표현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71.79 (+23.36)	코스닥	700.48 (+6.59)
금리 (미국 3년)	4.186 (+0.068)	환율 (원-달러)	1401.20 (-18.00) (7일)

소비감소·고용위축·수출부진... 곳곳서 경기둔화 경고음

질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KDI 11월 경제동향 '성장세 약화' 5%대 고물가에 소비부진 이어져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도 축소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침체 국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치솟는 물가가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고, 믿었던 수출마저 반도체업종 중심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그러자 지난 달 한국경제연구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곳곳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 없이 손 놓고 있다는 질타가 나온다.

KDI는 이날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3개월째 이어졌던 '경기 회복세 약화'란 표현이 이번에 '성장세 약화'로 바뀌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다는 점이다. KDI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7%로 5%대 고물가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는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9월 소매 판매는 -0.7%로 감소하며 회복세를 마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주요국 통화긴축 움직임은 향후 국내 소비시장을 더 옥죄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도 심상치 않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

험 가입자는 지난달 말 1493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가입자 수 증가폭이 계속 축소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직접 일자리 수 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내년부터는 도소매 등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제조업에 이어 비(非)제조업의 기업 심리도 하락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편의점 점주 한숨 돌렸지만 홍보 부족에 현장혼란 여전

일회용 봉투 금지 '1년 계도기간' 친환경 비닐 주문 등 대응 바쁘는데 현장에선 소비자 불만도 이어져

편의점의 일회용 봉투 전면 사용 금지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고 일주일만 지났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고 알렸다.

편의점 업계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모든 편의점 기업이 10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비닐봉투 발주 중단에 들어갔고 종이봉투, 종량제봉투, 다화용 봉투 등을 도입해 기존 비닐봉투를 대체하고자 했다.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GS리테일은 생분해성 수지 제조업체에 친환경 비닐봉투 신규 생산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주 이후 GS25에서는 비닐봉투를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대체재로 제시된 종이봉투는 100~250원, 종량제 봉투는 서울·20L 기준 490원, 다화용 봉투 5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CU는 지난해 PLA 생분해성 봉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점포 도입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다화용 소포백과 종이 봉투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이 대거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부터 비닐봉투 발주가 중단된 점포 점주들의 염려와 현장 혼란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편의점 점주들이 대거 활동 중인 네이버 소상공인 카페에 글을 올린 한 편의점 점주는 지난달 10일 발주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비닐봉투를) 돈 받고 판매도 그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예 없다고 하면 어떨지 눈에 뵈히 보인다"고 썼다. 댓글에는 다른 점주들의 공감도 이어졌는데 한 점주는 "우리는 20리터 종량제 봉투가 제일 작는데 매주 4천 사는 사람에겐 너무 큰 것 같다"고 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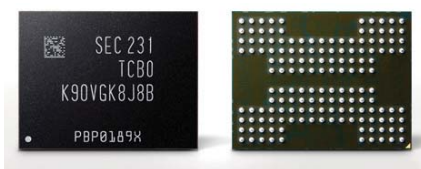
고객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지난달 18일 재테크 카페에 글을 쓴 한 회원은 "편의점 봉투 없으면 뭐 들고 다녀야 할지, 대체가 필요한데 마분 장바구니를 들고다니 수도 없다"며 "맥주 네캔 사오는 재미가 있었는데 날도 추워지는 데 손에 들고와야겠다"고 글을 썼다.

계상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도 "언제든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손잡이가 달린 저용량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

삼성, 8세대 V낸드 양산... 서버·車 정조준

200단대 돌입, 성능 1.2배 개선 생산성 확대, 원가 감소 기대감



삼성전자 8세대 V낸드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침체 속에서도 더 높은 낸드플래시를 내놓고 초격차 기술력을 뽐냈다.

삼성전자는 1Tb 8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8세대 V낸드 구체적인 단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7세대가 176단 이었던 만큼 200단대로 추정된다.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론이 232단 낸드 양산을 발표한 이후 업계에서 두번째다.

특히 8세대 V낸드는 삼성전자 낸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시장 침체 속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초격차' 전략도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크데이 행사를 통해 2024년 200단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9세대 V낸드 양산, 2030년에는 1000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잇따라 '세계 최초' 타이틀을 뽐기면서 기술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늦지 않게 200단대에 돌입하면서 기대감도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성능도 이전 세대 대비 약 1.2배나 개선했다. 최신 인터페이스인 'Toggle DDR 5.0'을 적용해 최대

2.4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지원한다. PCIe 4.0을 지원하며, 추후 PCIe 5.0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8세대 V낸드를 통해 사업 영역도 확대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 고용량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시장으로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컨퍼런스를 통해 서버 시장이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자동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이에 대응해 메모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 허성희 부사장은 "8세대 V낸드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더욱 차별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희근 경찰청장 "인파 우려 보고서, 용산 정보과장이 삭제 지시" /사진 뉴스1
▲ '참사 책임 어떻게?' 질문에...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

▲ 이종섭, 해군 日 관함식 경례에 "국제 관례... 육일기 경례 아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前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 권영세 "北 7차 핵실험 임박 징후 없어... 철저한 대응은 계속" /사진 뉴스1
▲ 윤 대통령 부부, 관저 이사 마무리... 곧 한남동 관저서 출퇴근